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및 04월 동향

리더 메시지

『04월 Newsletter』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 지원'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위기관리와 이사회의 역할'과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효율적인 내부감사 수행 방안'과,
이사회·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담은 '04월 거버넌스 캘린더'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3.31~5.11)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26.3.6 공포·시행)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함

1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및 공시대상 확대

☐ 주주총회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내용을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2 신탁업자 규율 강화 및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행위를 추가**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

→ 불특정다수 대상의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하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은 유지

자기주식이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가속

1.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 **부실기업 퇴출** 고위험군 집중 감시와 엄정 감리를 통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
- **감리인프라 혁신** 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 **효율적 수행** 과징금 부과권한 조정과 불공정 거래·회계부정 대응 공조 강화

2.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 **제재 수용성 제고** 방어권 강화와 위반동기 판단기준 구체화 추진
- **예방적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개선 및 회계이슈(테마) 신속점검 실시
- **스마트 감리** 新감리시스템 활용 및 감리지적사례 등 오픈 API 개방

3.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

- **효과성 제고** 위험수준 기반 감리대상 선정 및 부실 감사 엄정 제재
- **감사품질 경영 조성**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 의무화 및 공시항목 확대
- **품질관리 역량 강화**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를 추진하여 역량 강화 유도

상장법인 등 1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0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 실시 예정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 지원

검토 배경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중요성 확대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5% 룰') 시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 유형을 제시함



주주총회 문화 개선



주주총회 문화 개선 관련 활동(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총 안건에 대한 조기공시 요구,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자기주식



자기주식 소각 요구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 요청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배당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 관련 핵심지표(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의 **준수 요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님을 추가 명시**

임원보수 관련



임원보수 관련 주주활동(보수 세부내역·산정기준·정책/성과보상 관련 설명 및 변경 요구, 기관투자자 의견서 전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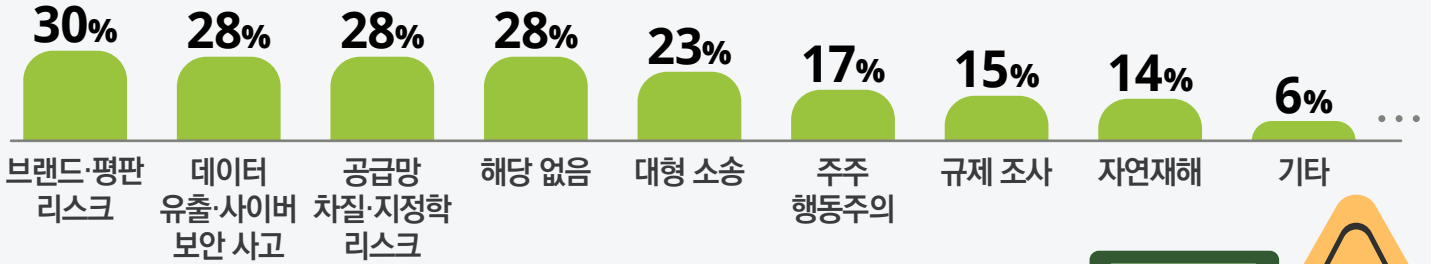
※ '26년 5월부터 총주주이익률·영업이익과 임원보수 병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시행 예정

위기관리와 이사회의 역할

위기관리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실행·거버넌스 간 차이 나타나,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 강화 필요

최근 3년간 직면한 위기 유형

(응답자 71명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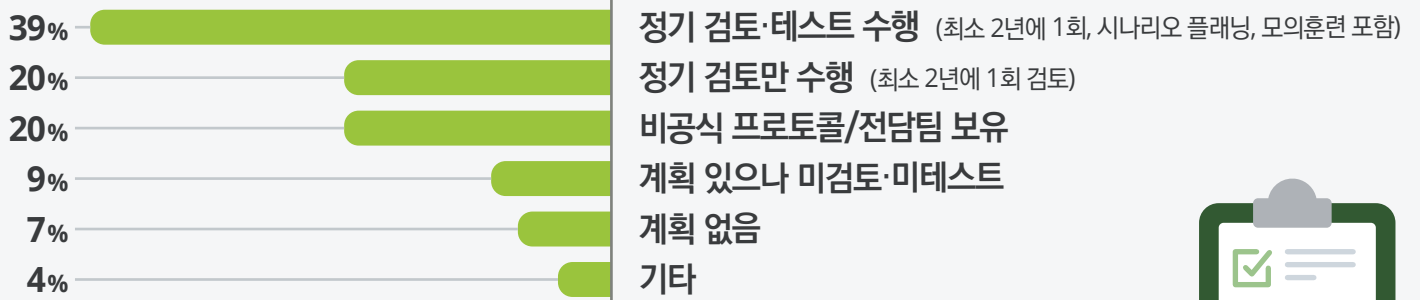


평판 리스크와 사이버보안 위협이 핵심 리스크로 부상함에 따라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필요



공식 문서화된 위기관리 계획 보유 여부

(응답자 6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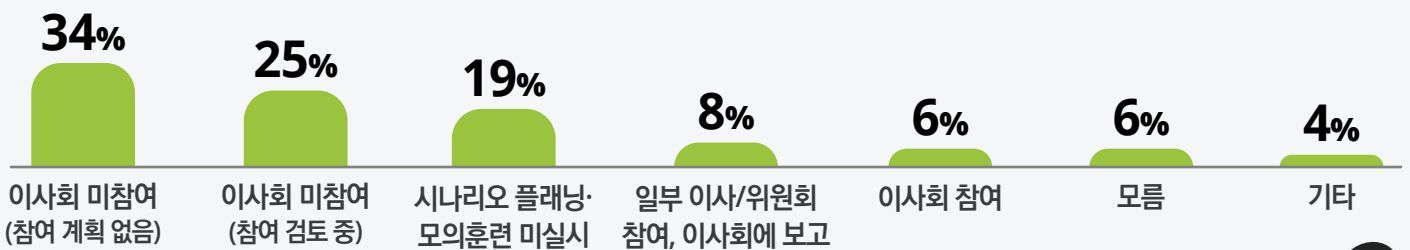


위기관리 계획을 보유한 기업이 다수이나, 실전 대응력을 점검하는 테스트·검토 활동은 제한적으로 운영 중



시나리오 플래닝 및 모의훈련에 대한 이사회의 참여 수준

(응답자 53명)



위기 시 이사회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플래닝·모의훈련에 대한 이사회 참여(14%)는 미흡한 수준에 있어 이사회의 위기관리 역할 강화 필요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oard Practices Quarterly: Crisis management and the board」, 2026.03, 2025년 4분기 미국 기업거버넌스협회 회원사(상장 76사·비상장 17사) 거버넌스 전문가 대상 서베이 실시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효율적인 내부감사 수행 방안

Q.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내부감사부서가 효율적인 내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도 내부감사부서는 리스크 기반 접근, 자원 활용, 기술 및 외부 전문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내부감사의 범위와 깊이를 전략적으로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리스크 기반 감사계획 철저 준수 / 이전 업무 자료 활용

- 업종별 핵심 리스크 식별 (예: 제조업 → 재고 관련 부정)
- 과거 내부감사 결과 등을 활용해 내부감사 소요시간 단축 및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

② 자원 활용의 다양화

내부인재 활용 / 코소싱 / 네트워킹 / 기술 도구 수용 / 채용 방식 재고

- 독립성·객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 부서 전문인력 참여
- 사이버보안 등 전문성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에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
- 협회 등 네트워크를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집단적 인사이트 확보
- AI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후속조치 추적 등 반복 업무의 효율화
- 퇴직자 등 숙련된 전문가를 파트타임·자문 형태로 활용

③ 역량 강화 및 가치 홍보

지속적 학습 / 내부감사의 가치 적극 홍보

- 웨비나, 전문협회 자료 등 저비용 학습자원을 팀 차원에서 체계적 활용
- 내부감사부서의 성과를 정량·정성적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지배기구에 보고
- 성과보고서, 사내소통채널 등을 통해 내부감사의 존재 이유와 기여를 가시화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 「Small Audit Functions, Large Audit Abilities」(25.0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됨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

2026년 경제 및 거버넌스 트렌드 : 기업 지배기구의 전략적 대응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상법 개정, 기관투자자 공시 및 지배구조와 재무 연관성까지, 이 모든 변화를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배기구의 핵심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2026년 핵심 거버넌스 현안과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국내 기업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C레벨 등

일시 2026년 4월 29일 (수) 14:00 ~ 16:40

장소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3F)

주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한국회계학회

* 교육확인서 발급 및 KICPA CPD 등록 가능

- ✓ 장소 수용인원 제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사회자: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05	Opening Remarks I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명지대 행정부총장
14:05~14:10	Opening Remarks II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
14:10~14:45	세션 I. 2026 글로벌 금융 시장 이슈 점검: 트럼프 2.0이 만들어낸 혼란과 환율의 대전환 👤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14:45~15:20	세션 II. 개정 상법 이후,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실무적 대응방향 👤 임정하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0~15:40	Break Time & Networking	
15:40~16:15	세션 III. 한국 대규모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공시 정보의 중요성과 현황 👤 강평경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16:15~16:35	세션 IV. 2026 거버넌스 리뷰: 국내외 현황과 산업별 지배구조·재무연관성 👤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16:35~16:40	Closing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한국회계학회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6년 제1회 정기포럼

변화하는 거시경제 환경과 AI 시대, 감사위원회와의 전략적 통찰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기술 변화가 동시에 확대되는 환경에서
기업 지배기구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전략적 감독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금) 오전 07:30 ~ 09:30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오키드룸(2F)

 **ACF** 감사위원회포럼

참가신청은 본문 링크 참조

 사회자 | 김한석 (사) 감사위원회포럼 이사

시간	내용	연사
07:10 ~ 07:30 [20분]	참가자 등록	
07:30 ~ 08:00 [30분]	조찬	
08:00 ~ 08:10 [10분]	환영사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팀장
08:10 ~ 08:45 [35분]	주제 I-1.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개발연구원장 역임)
08:45 ~ 08:55 [10분]	Break Time	
08:55 ~ 09:30 [30분]	주제 II. AI 전환 시대,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 민첩한 거버넌스 감독으로 가치를 창출하라	김학범 한국 딜로이트 그룹 A&A INTEGRATED FINANCE SERVICE GROUP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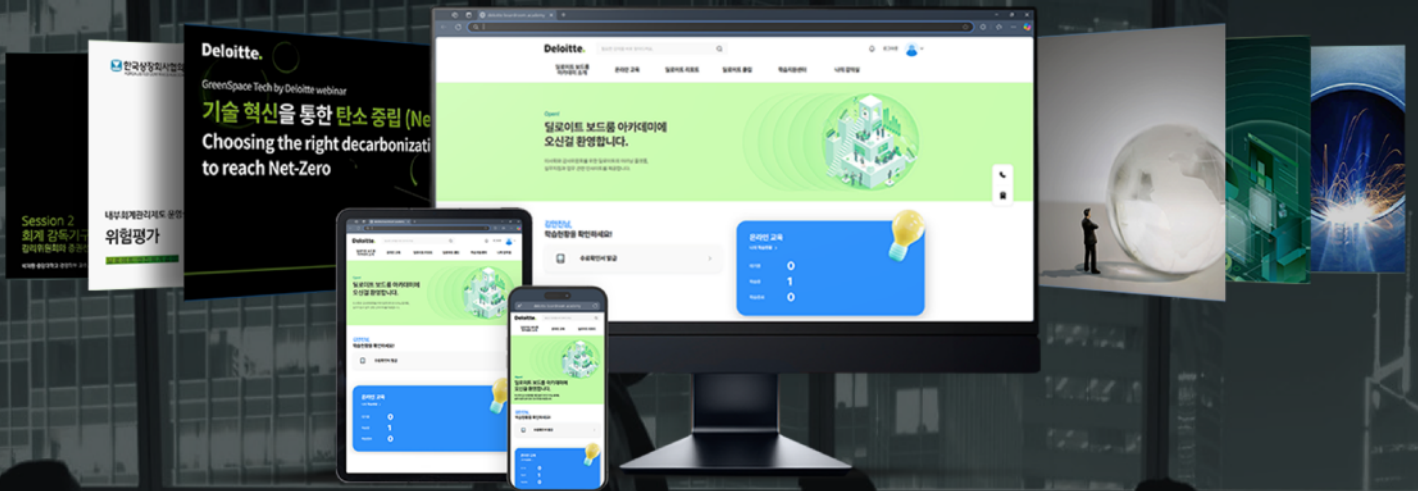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 회원에 한해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무료)

이사화·감사위원회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이용 대상 전면 확대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 감사님을 비롯해
기업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딜로이트와 외부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담은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의 문을 넓혔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화·감사위원회 핵심 이슈 중심 맞춤형 아젠다 제공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SI 등)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학습



공시용 수료확인서 발급 가능

04 |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9	30	31	01	02 음 2.15	03	04
05 국제 여성의 날	06 한식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음 3.1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초도 감사대상 회사)	01	02

이사회

- ✓ 1분기 보고서 의결 (4-5월 중)
회사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
- ✓ 1분기 배당 의결 (4-5월 중)
회사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정관에 따른 배당 지급 시기 예외)

감사/감사위원회

- ✓ (초도감사 대상 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외부감사인의 1분기 재무제표 검토 보고 수령 (4-5월 중)
-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 및 평가 계획 보고 수령 (4-5월 중)
- ✓ 외부감사인의 연간 감사계획 보고 수령
- ✓ FY2025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확인 결과 보고

* 이사회·감사위원회 캘린더 안내 및 전체사항(중요): 본 캘린더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범용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월별 필수업무 및 권고사항을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업별 자산규모, 사업특성 및 내부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운영 계획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간 일정 수립 시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hansukim@deloitte.com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현 파트너

회계감사

@ hyunjeong@deloitte.com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범 파트너

통합 재무 서비스 그룹

@ hbkim@deloitte.com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훈 파트너

회계감사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회계감사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파트너

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상무보

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차장

juyeonlee@deloitte.com

이화연 과장

hwaylee@deloitte.com

권예은 대리

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